

‘호남 문인화의 멋’ 해남공룡박물관서 만난다

옛 선비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해남공룡박물관서 열린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따르면 11월 1일까지 해남공룡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전북 전주시 소재 ‘미술관 술’과 연계해 ‘선비의 하루를 거닐다’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K-뮤지엄 지역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호남 지역(전남, 전북)을 대표하는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 작가의 작

군, 11월 1일까지 ‘선비의 하루를 거닐다’ 전시회 개최
전남·전북 대표 조선 후기~근현대 작가 작품 60여점

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추가적으로 당대 대가들의 작품 60여점을 선보인다.

전남권의 작가로는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을 비롯해 미산 허형, 추사 김정희, 해남 출신의 서화가 미방 김의노와 그의 아들 소방 김흥주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전북권에서는 포도 그림의 대가 낭곡 최석환, 석정 이정직, 유하 유영환 등 전북 대표 작가 작품들을 통해 지역 문화의 특색을 조명한다.

이어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해원 신윤복과 오원 장승업, 초상화의 대가 석지 채용신 등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연과 일상을 바라보던 시선과 문인들의 정신세계가 그림 속에 어떻게 표현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남과 전북에서 형성·발전한 문인화의 특징과 계보를 비교하며 호남 전통 회화의 예술적 가치도 함께 느낄 수 있

다. 자연사와 과학 중심의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전통미술을 선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남공룡박물관은 해남 지역을 대표하는 공립박물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자연사·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획 전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옛 선비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전천후 거닐며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깊이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11월 1일까지 해남공룡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전북 전주시 소재 ‘미술관 술’과 연계해 ‘선비의 하루를 거닐다’ 전시회를 갖는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청



강진 병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주거개선사업을 마친 가정을 방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강진, 병영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추진

한국가스공사 후원...3가구 도배, 장판·누수 보수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병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지정기탁금 900만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3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하고, 최근 기탁식과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주거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 가구들은 곰팡이와 누수, 단열 성능 저하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일부 가구는 온수 사용에도 어

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는 사전 현장 확인을 통해 가구별 주거 여건과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도배·장판 교체를 비롯해 창호·방충망 교체, 누수 보수, 온수기 설치 등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실내 위생과 온수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외풍과 벌레 유입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기탁식에는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노진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경 강진군의회 복지위원장, 배미연 병영면장, 김용관 병영면지

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탁식에 이어 수혜 가정을 방문해 집수리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된 주거환경을 확인했다.

배미연 병영면장은 “집수리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주신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병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추가 보수나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자원 및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무안 반값여행’ 250여팀 신청 조기마감

주중 체류 관광 유도...여행경비 50% 모바일 상품권 환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9월부터 추진한 ‘2026 갯벌썩 무안 반값여행’ 사업이 당초 모집 목표인 250여팀의 신청을 받아 조기 마감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안항토갯벌랜드와 관내 관광지를 연계해 관의 방문객의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고, 주중 숙박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4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이번 프로그램은 관의 거주자가 주중 1박 이상 무안에 머물며 무안항토갯벌랜드를 포함한 관내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는 지역 인정 지출액의 50%를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참여자는 신청 일정에 따라 숙박과 관광을 마친 뒤 여행 종료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영수증과 인증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뒤 정산 신청 다음 달 15일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한도는 2인 이상 팀을 기준으로 1박형 최대 20만원, 2박 이상 연박형 최대 40만원이다. 인정 지출 항목에는

숙박비를 비롯해 음식점·카페 이용료, 지역 특산물 구입비, 유료 체험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환급금을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참여자들의 추가적인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관광 소비가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은 무안항토갯벌랜드를 거점으로 주중 숙박과 관내 소비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사업 운영 결과와 실제 소비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진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2월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현장 단속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와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징수 기간에는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독촉

장과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체납자의 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압수(영치)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진도군은 체납액 징수 활동과 함께 납부 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KH MEDICHECK

건강검진

매일 체크✓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